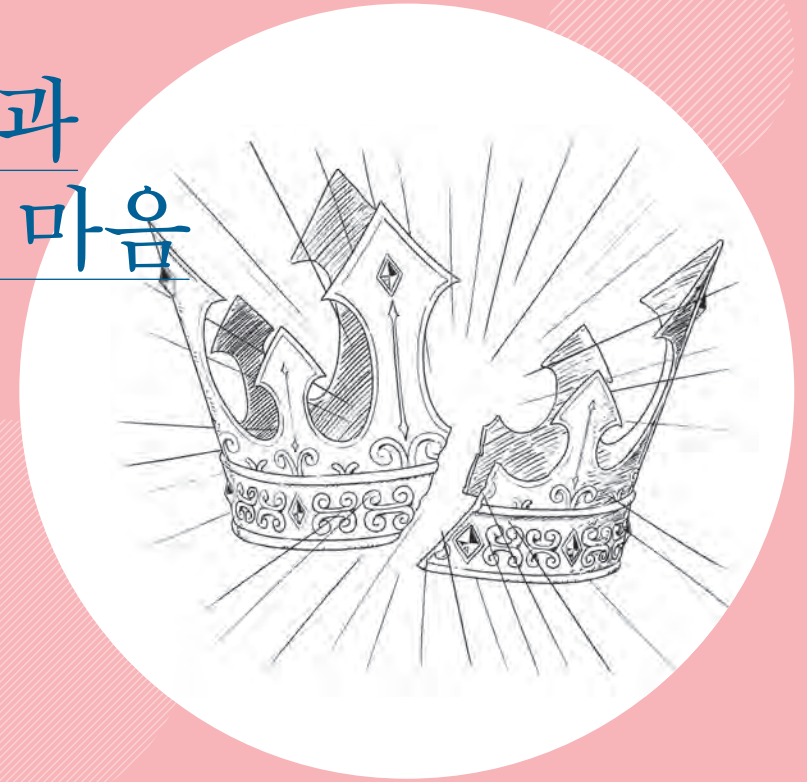


1과

처음과 다른 마음



남 왕국 유다를 통치한 20명의 왕 중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평가받은 왕은 8명이었다. 다른 12명의 왕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개혁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이 왕들의 개혁조차도 멸망으로 치닫는 남 왕국 유다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결국 남 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다(주전 586년).

남 왕국 유다의 최후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성전을 가졌을지라도 참 신앙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인에게 멸망당하게 됨을 보여준다. 예레미야는 성전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외쳤으며,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았다. 진정한 신앙은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적인 믿음과 실천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기 원하시며, 혹여 그것에 실패한다면 하나님은 멸망을 통해서라도 벌을 내리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 이시다.

배울 말씀

왕상 11:26-12:33

읽을 말씀

왕상 11:29-36

외울 말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왕상 8:58).

메인 아이디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싫어하며 그것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이어가신다.

포인트

변심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 가장 화려했던 시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완공하게 하셨다. 7년간 이루어진 성전 공사 이후에도, 솔로몬은 13년 동안 계속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 연이은 두 공사는 이웃 나라인 두로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그로 인해 20년간 노역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의 피곤은 극에 달했다. 이는 훗날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솔로몬은 나라의 안정과 왕권 강화를 위해 이방 왕족, 귀족 여인들과 정략결혼을 했으며, 말과 병거의 수를 늘리고 군사 조직을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모습이었다(신 17:14-20, 삼상 8장). 이는 모두 이방 민족의 통치 방식을 모방한 것이었다. 솔로몬의 정치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이어졌으며,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이 퍼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솔로몬의 이러한 정책들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과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배치되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당시, 여호와와 율법을 준행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때 흥왕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었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는 벌을 내리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있을 때 이 일을 행하신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솔로몬의 공사 감독 출신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여로보암은 열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 북쪽을 차지하여 북 왕국 이스라엘을 세웠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지지하여 남 왕국 유다를 이어갔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고 말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보호하신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따르는 자를 찾기 어려운 오늘날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겨야 함을 알게 하자.

핵심 단어 > 우상

우상은 하나님 이외에 숭배의 대상이 되는 형상을 말한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것도 금하셨다. 우상은 사람의 욕심으로 생겨나며(롬 1:23-25),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마 6:24).



우리 마음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거나 시간이 지나가며 변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좋았다가 싫어지기도 하고, 마음에 들어서 산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싫어지기도 해요. 반대로 싫어하던 음식이나 날씨가 좋아지기도 해요.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변심’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변심했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여러분 교재 1과 ‘이름’에 적고 나누어볼게요. (한 사람씩 나눈 후 격려한다.)

지금 나는 것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거나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변심’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솔로몬을 기억하나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보내셨어요. 아히야는 자신의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은 뒤,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그러고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열 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시간이 흘러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여로보암이 백성과 함께 왕을 찾아가 말했어요.

“우리의 일을 덜어주십시오. 당신의 아버지처럼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솔로몬 재임 시절, 백성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로 힘들어했기 때문이에요.

* 열왕기상 11:32의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통칭하는 말이다.

르호보암은 이 일을 신하들과 의논했어
요. 나이가 든 지도자들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했고, 젊은 지도자들은 솔로
몬 때보다 더 고된 일을 시켜야 한다고 했
어요. 르호보암은 젊은 지도자들의 말을
따랐어요. 그러자 백성은 르호보암을 떠
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남
왕국 유다와 북 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었
어요. 르호보암이 다스린 남 왕국 유다는
두 지파로, 여로보암이 다스린 북 왕국 이
스라엘은 열 지파로 이루어졌어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 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으로 가는 것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금송
아지를 만들어 단과 벰엘에 두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교재 ‘들음’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림에 있는 친구의 마
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를 나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
님을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는데, 마음에 하
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향해야 할 마음이
자꾸만 다른 것으로 향하게 돼요.

DEEP Q

- 1. 솔로몬은 어떤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행했어요.
- 2. 하나님은 왜 솔로몬의 불순종을
이스라엘을 분열시킬 정도의 심각한
죄로 여기셨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왕상 9:1-9),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했어요
(왕상 11:4).

솔로몬은 어땠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변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스
라엘을 분열하심으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
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을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
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해요. 그리고 그 마
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해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변심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은 변하지 말아
야 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재 ‘걸음’을 보
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에 세 가지를 적어볼게요. (시간을 준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무
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보기>를 참고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결단”
에 적고 나누어볼게요. (한 사람씩 나눈 후 격
려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결단
1	
2	
3	

보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결단
게임	주일 예배를 위해 토요일 늦게까지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부 & 성적	공부와 성적 스트레스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와 큐티를 하겠습니다.
친구들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권유한다면, 과감히 뿌리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만 향했고, 하나님을 가
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솔로몬
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
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변했어요. 더 이
상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우상 숭
배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열함으로, 솔로몬의 변심을 심판하셨어
요. 하지만 남 왕국 유다를 남겨두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가셨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
하면 안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어떤 상황과 유
혹이 오더라도 변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가기로 해요. (하나님을 향
한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마칩니다.)